

라틴아메리카 국민국가와 정체성 형성과정 연구 시론*

이 성 훈
단독/서울대학교

Lee, Seong-Hun(2008), Estudio sobre el proceso de la formación del estado-nación latinoamericano y su identidad, *Revista Iberoamericana*, 19-1, pp. 103-123.

Este estudio intenta investigar el proceso de la formación del estado-nación de América Latina. Por lo cual, primero, revisamos la teoría de Benedict Anderson sobre la formación del estado-nación. A pesar de que su teoría es aceptada positivamente, en el caso de América Latina se necesita un acercamiento cauteloso. Es debido a que su teoría no es adecuada en los casos de América Latina, porque su perspectiva está principalmente basada en los de Europa y Asia.

El nacionalismo hacía un rol relevante en la formación del estado-nación después de la guerra de la independencia a diferencia de lo que insiste Anderson en su libro, según lo cual, el nacionalismo es un elemento decisivo que provocó la guerra de la independencia de América Latina. Aunque quedan puntos que no se explican con su teoría, el nacionalismo sigue siendo como punto de partida con respecto a la formación del estado-nación. Se dice que el nacionalismo es una ideología y un movimiento político que pone a la nación como único referente identitario de la comunidad política. A través del estudio, podemos concluir que el nacionalismo es un proceso político, histórico y cultural, cumplido por los criollos para fortalecer su hegemonía.

Este estudio consta de dos partes. En la primera se hace una breve presentación sobre la independencia de los países latinoamericanos, relacionándola con los elementos exteriores como las reformas borbónicas. Y luego, intentamos analizar el mecanismo del nacionalismo enfocándonos en el proceso en que se formaba el estado-nación.

[nacionalismo/ estado-nación/ independencia/ criollo;
국민주의/ 국민국가/ 독립/ 프리오요]

* 이 논문은 2007년도 정부(교육인적자원부)의 재원으로 한국학술진흥재단의 지원을 받아 수행된 연구임(KRF-2007-358-A00134).

I. 서론

국내 라틴아메리카 문학 연구에서 독립 이후 국가 형성기는 중요성이 다소 간과되어 왔다. 이는 독립 이후 국가 형성기가 갖는 매우 다면적인 성격에서 비롯된다고 할 수 있다. 다시 말해, 라틴아메리카 독립 이후 국가 형성기는 지역에 따라 독립 시기와 내용에 있어서 상당한 차이를 보이고 있어 그 성격과 특징을 일반화하기가 쉽지 않다. 문학 작품의 양이 많지 않다는 문제 또한, 문학 작품을 위주로 하는 전통적 문학비평이 이 시기를 다루는데 한계로 작용했다. 따라서 유럽 중심의 문예사를 기계적으로 도입시킨 사적 방법론을 제외하고는 이 시기가 갖는 의미에 전착한 연구는 별로 진행되지 못했던 것이 사실이다. 그러나 이러한 통시적 방법론은 독립과 개별 국민국가 건설이라는 라틴아메리카의 독특한 역사적 배경이 문학에 어떤 영향을 끼치고 있으며, 또 문학이 독립과 국민국가 형성에 어떤 의미 있는 역할을 하고 있는지를 밝히는 데는 한계를 보여준다.

이런 맥락에서 도리스 섬머가 『국민형성문학 Foundational Fictions』에서 보여준 연구 방법론은 중요한 의미를 갖는다고 할 수 있다. 그녀는 낭만주의 시기 작품들을 대상으로 하여, 그 안에서 펼쳐지고 있는 러브 스토리를 국가 형성을 위한 계층, 혹은 인종의 결합이라는 관점에서 이해하고 있다. 이러한 입장은 낭만주의 코드에 내재해 있는 개인적 감성을 국가 형성이나 국가 정체성과 관련지어 이해한다는 점에서 진일보한 것이다. 그러나 앤더슨의 내셔널리즘을 이론적 출발점으로 한 도리스 섬머의 분석적 작업은 주지하다시피, 주로 19세기 후반의 작품을 대상으로 하고 있다는 점에서 독립 시기와는 다소 시간적 간극이 존재한다. 이런 한계에도 불구하고 독립시기와 이후 시기의 국가 정체성 형성과정에 내셔널리즘이 어떻게 개입하고,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는가를 살펴보는 것이 이 시기 연구와 관련한 주요한 출발점이라고 할 것이다.

이 글에서는 라틴아메리카 독립과 국가 정체성 형성에 관해 ‘일반적’으로 받아들여지는 베네딕트 앤더슨의 견해를 비판적으로 검토하고, 레베카 얼(Rebecca Earle)의 연구를 중심으로 하여 국가정체성을 진작하기 위해 사용

된 다양한 상징들이 갖는 의미를 시기별로 살펴보고자 한다. 특히 앤더슨의 내셔널리즘이 라틴아메리카 독립과정에서 실제로 의미 있는 기제인지를 살펴보고, 이후 국민국가 형성에서 어떤 효과를 만들어 내었는지에 주목하고자 한다. 이 과정은 자연스럽게 상상의 공동체라는 개념을 출발점으로 하여, 독립 이후 국가 형성 과정에 개입해 있는 다양한 권력관계를 포착하고 이러한 권력관계가 현실 상징 속에서 어떻게 구현되고 있는지를 보여줄 것이다. 이처럼 독립과 국가 형성의 중심축이라고 할 수 있는 프리오요 계층이 구획된 영토 내의 구성원들에게 국민으로서 소속감을 부여하기 위해 어떤 문화적 장치들을 설정하는 지를 살펴보는 것은 독립이후 국가의 성격을 이해하는 데 있어 매우 의미 있는 작업이 될 것이다. 특히 내셔널리즘이 라틴아메리카 독립의 선행적 요소가 아니라, 독립이후 국민국가의 형성과 강화를 위해 프리오요 지배계층에 의해 적극적으로 수행된 일련의 정치적, 역사적, 문화적 과정임을 살펴보고자 한다.

이를 위해 본고는 크게 두 가지 측면에서 논의를 진행할 것이다. 먼저 라틴아메리카 독립 과정을 당시 외부적 요인과의 연관선상에서 살펴보고, 독립이후 등장하는 국가들이 정체성을 확립하고 국민을 만들어 내는 과정에 주목하여 내셔널리즘의 작동 기제를 분석해 보고자 한다. 그러나 앞서 이야기 한 것처럼 개별 국가들이 가지고 있는 역사적 경험의 상이성으로 인해, 라틴아메리카의 경험을 일반화하기에는 상당한 위험부담이 따른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개별 국가들의 사례 보다는 라틴아메리카가 경험한 국가 정체성 형성 과정을 내셔널리즘과 관련하여 정리하는 것은 이후 진행될 개별 국가 단위 논의, 젠더, 인종을 둘러싼 다양한 후속 작업의 출발점이 된다는 측면에서 의미 있다고 할 것이다.¹⁾

1) 본인은 이 글을 시작으로 하여 국민국가 형성기를 '프리오요 남성중심적' 사고가 아닌 다른 인종, 계층, 그리고 젠더의 관점을 통해 차례로 살펴보고자 한다. 이 일련의 연구들이 라틴아메리카 국가형성기 연구의 출발점이 되기를 바란다.

II. 부르봉 개혁정책과 라틴아메리카 독립

1. 부르봉 왕조의 개혁 정책

1806년부터 시작된 스페인으로부터의 독립 움직임은 이미 18세기에 나타나고 있었다고 할 수 있다. 이러한 독립 움직임은 내부적인 요인과 외부적인 요인으로 나누어서 살펴볼 수 있다. 내부적인 요인으로는 끄리오요 계층 인구의 증가에 따른 정치적·경제적 영향력 확대를, 외부적인 요인으로는 부르봉 왕가의 개혁정책을 대표적으로 들 수 있다(Bushnell & Macaulay, 1989:17).

여기에서는 식민지 독립운동의 실질적인 배경으로 작동했던 부르봉 개혁정책을 간단하게 살펴보고자 한다. 부르봉 왕가의 개혁은 스페인과 식민지에서 생산성을 향상하고 보다 많은 세수를 확보하기 위한 경제제도 측면과, 지배를 보다 공고히 하고자 하는 행정과 정치 측면의 조치로 나누어서 살펴볼 수 있다.

1713년 왕위계승전쟁에서 승리한 부르봉 왕가는 유럽뿐만 아니라 신대륙에서도 쇠락해 가던 스페인의 영향력을 복원하려 한다. 즉 영국, 네덜란드 등 유럽의 여타 강대국과의 경쟁 속에서 식민지를 보호하고, 식민지로부터 세수를 확충하기 위해 부르봉 왕가는 행정과 정치분야에서 강력한 개혁조치를 취하게 된다. 대표적인 것이 기존의 누에바 에스파냐 부왕령(Virreinato de Nueva España)과 페루 부왕령(Virreinato de Perú)외에 누에바 그라나다 부왕령(Virreinato de Nueva Granada, 1717, 1739)과 리오 데 라 플라타 부왕령(Virreinato del río de la Plata, 1776)이라는 두개의 새로운 부왕령을 만들어 행정 구역을 보다 체계화한 것이다. 게다가 까를로스 3세는 합스부르크 왕가의 복잡한 행정체계를 인덴덴페 시스템(intendencia)으로 교체하여 보다 단순하고 강력하고 효율적인 식민지 경영 시스템을 구축하고자 했다. 이 인덴덴페 시스템은 기존의 꼬레히도르(corregidor)를 비롯한 행정 관료를 국왕이 직접 파견하는 인덴덴페(intendente)로 대체하는 것을 의미하는데, 이들은 식민지에 대한 스페인의 통제력을 획기적으로 강화했다. 인덴덴페는 기존의 꼬레히도르들에 비해 보다 소수였고 집중된 권한을 가지고 있었다(Skidmore

& Smith, 1994: 26). 이들의 역할은 식민 개혁을 성실하게 수행하고, 이를 통해 스페인 왕실에 충성을 다하는 것이었다. 이러한 일련의 경향은 예수회 추방에서 보이듯이 식민지 사회에서 왕권을 강화하고자 하는 부르봉 왕가의 개혁조치가 가지고 있는 절대주의적 특성이었다.

결국, 인덴테페 시스템 도입은 기존 꼬리오요가 담당하던 직위수의 감소와 세금 부담의 증가로 나타났다. 특히, 1750년에는 지역 사법체계를 담당하고 있던 꼬레히도르 93명 중 51명이 식민지 태생이었던 반해, 1807년에는 99명 중 12명만이 꼬리오요였다는 기록에서 보는 것처럼 그 수는 급감하게 된다(Skidmore & Smith, 1994:27).²⁾ 관직수의 급감에서 볼 수 있는 것처럼, 부르봉의 개혁정책은 구체제의 행정시스템 내에서 상대적으로 정치·경제적 이익을 얻고 있던 부유한 꼬리오요 계층의 이익과 충돌할 수밖에 없었다.

경제적인 측면에서도 카를로스 3세는 1778년 자유무역칙령(Reglamento para el comercio libre)을 반포하여 식민지의 24개 항구가 스페인 내의 모든 항구와, 또는 식민지 내에서 직접 교역할 수 있게 허용한다. 따라서 기존의 교역 중심지인 베라크루스, 까르파헤나, 리마, 파나마 외에도 부에노스아이레스가 이러한 조치의 직접적인 이익을 보게 된다. 까디스와 세비야가 가지고 있던 독점 무역권이 해체 되고 스페인의 새로운 항구들이 개방되기 시작하면서 비롯된 일련의 개방조치는, 경제적 통제가 당시 공공연하게 진행되던 밀무역에 세금을 부과하는 방식으로 전환하였음을 의미한다. 이러한 조치로 인해 부르봉 왕가 시기 식민지와의 교역은 보다 증가하게 되었고, 이로 인해 세수 증가 등 식민지에 대한 통제 역시 보다 세련된 형태를 띠게 된다(Skidmore & Smith, 1994:27-28).

그 결과로 1782년에서 1796년 사이 스페인의 연평균 수출은 1778년 보다 무려 10배나 증가하게 된다. 또한 같은 시기 스페인과 라틴아메리카 간 교역량 역시 400% 증가한데 반해, 라틴아메리카에는 별다른 실익 없이 세금 부담의 확대로 나타난다. 린치에 의하면, “1780년 이후 삼십년 동안 판매세

2) 또 다른 기록에 의하면 1751-1080년 사이 아우디엔시아(Audiencia)의 266개 임명직 가운데, 62개가 꼬리오요에게 배정되었고, 나머지 200여개는 본국 태생의 스페인인에게 돌아갔다. 또 1808년 99개의 꼬리히도르의 경우 오직 6명의 꼬리오요가 자신의 고향에서 임명되었고, 19명은 다른 지역에 배치 받았다(Lynch, 1986:18).

(alcabala)는 155% 증가했지만, 이 증가는 경제적 성장에서 기인한 것이 아니라, 순전한 물리적인 착취에서 기인”했다(Lynch, 1986:12).

결국, 이러한 일련의 변화 속에서 끄리오요 계층은 자신들이 가지고 있던 정치, 경제적인 이익과 영향력에 타격을 받게 된다. 독립이라는 끄리오요의 정치적 선택은 바로 이러한 정치, 경제적 이해관계에서 시작되었다고 할 수 있다. 그러나 끄리오요를 중심으로 한 식민지 지도자들의 불만이 곧 독립선언과 독립전쟁으로 이어지지는 않는다. 독립전쟁은 1807-08년 나폴레옹의 이베리아 반도 침입과 왕위 찬탈이라는 외적 요인에 의해 촉발되게 된다.

2. 독립의 정치적 내용

린치가 말한 것처럼, 라틴아메리카의 독립은 “갑작스럽고, 폭력적이고, 일관적” 것이었다. 독립은 프랑스군 침입이라는 외적 요인에 의해 촉발되었지만, 보다 구조적으로는 부르봉 왕조의 개혁조치에 의해 시작되었다고 할 수 있다. 본질적으로는 이해관계에서 출발한 것이지만 부르봉 왕조의 개혁조치는 끄리오요 계층으로 하여금 정치적 자각을 가능하게 했고, 식민 모국인 스페인과 다른 식민지인으로서 자의식을 갖게 한 것이다.

부르봉 왕가의 일련의 개혁정책은 라틴아메리카를 식민적 상황에 묶어두고 종속을 강화하고자 하는 통제수단으로 기획되었다. 그러나 의도와는 달리 개혁정책은 식민지배 구조를 내부로부터 붕괴시킬 단초를 제공했다. 즉 개혁조치들은 결코 “만족할 수 없는 미각”을 자극했고, 개혁조치가 가지고 있던 ‘강화된’ 식민주의는 끄리오요가 가지고 있던 이해관계를 훼손하고 식민지 사회에 존재하고 있었던 미묘한 힘의 균형관계를 파괴하게 된다(Lynch, 1986:1-2). 즉 끄리오요 계층은 토지, 광산, 상업 등에 기반한 경제적 이익과 식민관료와의 정치적 결탁 혹은 혈연적 관계를 통해 일정한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었다. 당시 취약한 식민지 통치 시스템과 식민지 정세 편의라고 하는 스페인의 필요는 끄리오요 계층과의 공존을 일정부분 용인할 수밖에 없었다. 끄리오요 계층 역시 스페인의 식민 지배 속에서 자신들의 이해관계를 보장받는 나름의 공존을 모색한 것이다. 그러나 부르봉 왕가가 기존과는 다른 절

대주의적인 통치를 선택하면서 꼬리오요의 다양한 이해관계는 결정적으로 타격을 받게 된다. 즉 행정 영역에서도 국왕의 통치를 절대화 했고, 경제 시스템 역시 철저하게 식민주의적인 방향으로 선회한 것이다(Lynch, 1986:7).

이처럼 꼬리오요가 가지고 있던 정치·경제적 이해관계와 문화적 자의식에 대한 공격은 꼬리오요로 하여금 스페인 왕실과의 관계를 고민하게 하는 계기가 된다. 그러나 이들의 고민은 이중적이라고 할 수 있다. 다시 말해, 스페인과의 관계를 재정립하고자 했지만 식민 통치에 대해 폭력적으로 저항했던 식민지 민중의 다양한 요구는 통제해야 했던 것이다. 자신들의 이해관계를 보장할 권력을 허용하지 않았던 스페인 식민모국과는 단절을 모색했지만, 대중들이 독립과정을 지배하고 독립의 과실을 가져가는 것을 용납할 수 없었던 것이다. 이러한 상황에서 1808년 스페인 왕정이 붕괴하면서 식민지에 일정한 정치적 진공상태가 만들어지자, 꼬리오요들은 이 정치적 공간을 비워둘 수 없었다. 그들은 곧 대중적 저항을 자신들의 필요에 따라 동원하고 ‘적절하게’ 지도해야 했다(Lynch, 1986:23). 이는 곧 독립을 통해 자신들의 권력을 강화할 뿐만 아니라, 무엇보다도 기층의 민중이 이것을 장악하는 것을 막을 수 있게 되었다는 것을 의미한다.³⁾

결국, 꼬리오요의 요구는 “정치적 권력 획득과 사회적 질서유지”로 정리될 수 있다(Lynch, 1986:24). 스페인으로부터 독립과 아래로부터의 저항을 관리하면서 자신들의 이해관계를 확장하고자 하는 꼬리오요들의 정치적 목표 및 스페인과 차별되는 라틴아메리카 인으로서의 문화적 차이에 대한 자각이 독립의 요구로 나타나게 된 것이다. 즉 정치적 권력 획득과 사회적 질서 유지라는 꼬리오요의 요구가 스페인으로부터 독립과 개별 국가로의 분화라는 형태로 이어진 것이다. 그러나 개별 국가로의 분화가 꼬리오요의 정치

3) 부르봉 왕조의 개혁조치가 진행되어 정세가 강화되면서 여기에 대한 저항이 일어나게 되는데, 1780-81년 사이에 벌어진 페루, 누에바 그라나다, 베네수엘라에서 일어난 소요가 대표적이다. 꼬리오요는 이러한 저항을 초기에는 지도했지만, 아래로부터의 힘에 눌려 결국 이중적인 입장을 취할 수밖에 없었다. 라틴아메리카에서 일어난 저항은 두 시기로 나누어 볼 수 있다. 첫번째는 기층계급이나 일부 꼬리오요 계층의 저항과 갈등이 일어난 1765-1781년 시기로, 라틴아메리카 역사에서 원주민들의 대규모 저항의 시기라고 할 수 있다. 두 번째 시기는 주로 꼬리오요 계층을 중심으로 진행되었는데, 주로 첫 번째 시기가 종결된 이후에 시작되었고, 1810-1826년 사이 독립전쟁을 중심으로 정점에 이르게 된다(Kinsburner, 1994: 15-18).

적 욕구 속에 관념적으로만 존재했던 것은 아니었다. 스페인과의 차별성뿐만 아니라, 식민지 내부 간 차이에 대한 자각도 이미 일정하게 존재했다는 것이다. 정복 이전에 존재하던 지역적, 문화적 분류에 기반 한 스페인의 식민 행정 체계는 국민국가의 토대를 예비한다고 할 수 있다. 즉 제국은 부왕령, 총독령(capitancia general), 아우디엔시아(audiencia) 등의 다양한 행정 단위로 분할되었는데, 이것에 기반한 각 지역이 상호 경쟁과 경계 내의 친밀성을 확보하는 토대로 작용했다(Lynch, 1986:15). 또한 행정적인 분할뿐만 아니라 자연적인 장애와 소통의 어려움 또한 제국에 의해 강제된 분리를 강화했다. 이런 맥락 속에서 라틴아메리카의 독립은 통합적인 아메리카가 아닌 개별적이고 지역적인 단위로 나뉘게 되고, 거주자들은 자신들이 거주하는 지역에 따라 자신의 정체성을 새롭게 구성하게 된다. 이 새롭게 구성될 정체성의 바탕에 내셔널리즘이 작동하게 되는 것이다.

III. 독립이후 국가 정체성 형성

1. 국가 정체성 형성의 시작

앞에서 간략하게 살펴본 것처럼, 라틴아메리카에서 4개의 부왕령이 각각 하나의 독립적이거나 통합적인 국가가 아니라 다양하게 분할된 이유는 광대한 면적과 다양성으로 인해 단일한 정체성을 갖는 것이 쉽지 않았다는 점을 들 수 있다. 또한 라틴아메리카 각 지역이 상호 유기적으로 결합되지 못하고 고립되어, 개별적으로 스페인과 연결되어 있었다는 점도 내부적 결합의 강도를 약하게 한 측면이 있다. 이 점은 독립 과정에서 주요 항구나 무역 거점을 중심으로 자연스럽게 국가들이 형성되었다는 사실에서도 잘 알 수 있다.

독립국가로의 진행과정은 두 가지 요소에 의해 좌우된다고 할 수 있는데, 하나는 대중적 저항의 강도이고 다른 하나는 이것을 통제할 수 있는 식민지 정부의 힘이라고 할 것이다. 대중적 저항의 강도가 강한 지역에서부터 독립운동이 촉발되고 독립국가로의 전환이 가속화되게 된다. 반대로 식민지 정

부의 힘이 상대적으로 강한 지역에서는 독립의 진전이 더디게 진행된다고 할 수 있다(Lynch, 1986:348).

이러한 독립국가 건설과 관련해서 가장 주목해야 할 점이 바로 베네딕트 앤더슨의 견해라고 할 것이다. 즉 식민시기에 이미 내셔널리즘이 형성되어 있어서 독립과 이후 독립국가 형성에 있어 결정적인 역할을 수행했다는 설명이다(Anderson, 2002). 이 점에 대해서는 다시 언급하겠지만, 앤더슨의 견해가 일정한 한계를 가지고 있다는 지적이 다수를 이루고 있다. 개별 지역이 갖는 특수성과 고립성으로 인해 초보적인 수준에서 다른 지역과의 차이를 인지하고 있을지라도, 여기에서 독립의 동력을 읽어내는 것은 무리라는 것이다. 오히려 내셔널리즘은 독립이후 끄리오요 계층에 의해 가공되고 내면화한 기제라는 설명이 보다 일반적으로 받아들여지고 있다.⁴⁾ 본고에서도 이런 입장에 따라 독립이후 국가 정체성을 형성하는 과정에 개입해 있는 다양한 상징적 조작과 그 맥락을 살펴보고자 한다.

주지하다시피, 동일한 역사와 문화적 기원에 기반 한 국가적 정체성 구성은 특정한 정치적 목표에 의해 결정된다고 할 수 있다. 즉 국가라고 하는 것은 그것을 규정하는 내재적인 본질을 갖고 있지는 않았다. 오히려, 이러한 본질이라고 하는 것도 ‘국가적인 것’을 찾고자 하는 특정한 정치적 움직임을 정당화하기 위해 나중에 구성된다고 하는 것이 맞는 말일 것이다(Bethell, 1987:455). 끄리오요 역시도 자신들의 정치적 이익을 보장하는 방식으로 독립을 선택했고, 이 독립을 위한 명분을 위해 ‘국가’라는 특정한 정체를 선택한 것이다. 초기 끄리오요 지식인들은 국가(nación)이라는 표현보다는 “빠뜨리아(patria)”라는 표현을 사용하고 있는데, 이 시기 빠뜨리아는 근대적 의미에서 국가라는 개념보다는 ‘자신이 태어난 곳’이라는 의미가 강하다(Castro-Karén & Chasteen, 2003:x). 이 빠뜨리아라는 개념을 통해 자신의 지역에 대한 새로운 자각과 배타적 귀속감을 느끼게 되고, 이를 통해 ‘우리 나라’에 더 관심을 갖게 된다. 이 표현에서 알 수 있는 것처럼 정복시기까지

4) 대표적으로는 *Beyond Imagined Communities: Reading and Writing the Nation in Nineteenth-Century Latin America*. Castro-Karén & Chasteen(eds.). 2003을 들 수 있다. 또한 1950년대 포퓰리즘이 등장하기 전까지 라틴아메리카에는 내셔널리즘이 존재하지 않는다라는 견해도 존재한다(Miller, 2006: 201).

고 있던 스페인에 대한 일체감에서, 대륙적인 일체감으로, 그리고 자신이 태어난 지역으로 정체성이 분화되고 있는 것이다.

스페인과 분리된 영역으로서 아메리카에 대한 이러한 귀속감 혹은 정체성 형성과 관련하여 의미 있는 출발점이 바로 예수회 추방(1763)과 예수회 신부들이 가지고 있던 아메리카에 대한 태도이다. 스페인의 절대왕권 강화를 위해 라틴아메리카에서 추방된 이들은 이제 스페인이 아닌, “자기 자신의 땅(en patria suelo)”에서 그리고 “그 하늘 아래(bajo aquel cielo)”에서 죽게 해달라고 쓰고 있다. 즉 스페인에 대한 귀속감이 아니라, 라틴아메리카에 대한 귀속감을 강하게 드러내면서 새로운 정체성이 만들어지고 있음을 상징적으로 보여준다. 예수회 작가들의 글은 개인적인 감정을 넘어서 새로운 정체성의 발현으로 해석될 수 있는 것이다. 린치에 의하면 예수회 작가들이 주로 지역적인 감성을 표현했다면, 독립 여명기에는 자신의 땅을 비롯해서 지역의 자원과 사람들을 찬양하는 작품들이 다수 등장하고 있다. 이러한 변화는 유럽의 편견에 맞서 아메리카가 가지고 있는 다양한 조건들을 긍정적으로 해석하고 정체성 확장으로의 국면에서 중요한 전환으로 이해될 수 있을 것이다(Lynch, 1986:30-34).

그러나 본격적인 의미에서 국가정체성이 모색된 시기는 독립 이후라고 할 수 있다. 내셔널리즘 형성에 있어 국가의 과거(national past)가 중요한 역할을 한다고 했을 때, 라틴아메리카의 경우 19세기 중반까지 여전히 국가적 경계가 완전하게 마무리 되지 않고 있었다는 점을 고려하면 19세기 후반부터 본격화 되었다고 할 수 있다(Kristal, 1994:587). 그러나 국가의 과거를 어떻게 설정할 것인가의 문제는 시기별로 약간의 차이를 보여준다. 뒤에서 다시 살펴보겠지만, 독립시기에는 스페인에 대항하기 위한 상징으로서 정복이전 원주민의 역사와 상징체계가 적극적으로 차용되었다면, 19세기 후반에 들어서면서 상황은 보다 복잡하게 변화한다. 물론 이런 변화에 대한 논란의 여지는 있지만, 독립이후 국민국가 형성시기에 국가적 과거는 ‘국민적’ 경계를 만들기 위한 지적이고 의식적인 작업을 통해 가공되기 시작한다. 신생 국가들의 가치와 이상을 과거의 전범 속에 투사하고, 이를 통해 국민적 일체감을 자극하고자 한 것이다. 이런 맥락에서 독립이전의 국민적 기원을 찾

는 작업은 문학가뿐만 아니라, 정치가들에게도 시급한 과제가 되었다. 따라서 『아라우카나 La Araucana』나 『왕조사 Comentario Reales』 등의 작품들이 칠레나 페루 등의 국가적 에토스를 상징하는 작품으로 의미를 갖게 된다. 독립을 달성한 이후에도 국가의식의 성장은 매우 느리고 부분적이었다. 이러한 국가의식을 추동할 적극적인 계기 역시 존재했는데, 그중 대표적인 형태가 바로 독립전쟁이라고 할 것이다. 즉 정복 이전의 과거뿐만 아니라, 이제 독립 전쟁을 통해 투쟁의 신화와 공통의 과거에 대한 소속감을 확장해 갔고, 이를 통해 국가사(national history)를 만들어 나가게 된다(Lynch, 1986:341). 이 과정이 바로 국민국가 형성의 중요한 첫걸음이라는 것이다.

2. 내셔널리즘과 국가정체성

독립이후 국민국가 형성과 관련하여 등장한 내셔널리즘은 앤더슨의 입장은 달리 독립시기에는 거의 구체적인 내용을 갖지 못했다. 즉 식민시기의 엄격한 위계질서와 인종적 차별을 부정하는 평등적이고 자유주의적인 사상에 의해 독립이 추진되었지만, 실제로 대중들은 국가에 대해 그다지 일체감을 갖지 않았다. 따라서 대중들은 독립전쟁에 자발적으로 참여한 것이 아니라, 전쟁 시기에 강압적으로 징집되었고 전쟁 이후에도 평등한 구성원이라기보다는 꼬리오요 계층에 의해 통제되고 제한된 의미의 국민으로서 지위를 부여 받았다(Lynch, 1986:348). 다시 말해 원주민과 흑인 계층은 독립의 과실을 거의 얻지 못했고, 독립국가에 일체감을 느껴야 할 필요성을 거의 느끼지 못한 것이다.

따라서 라틴아메리카에서 내셔널리즘의 역사는 독립이후 국민국가의 정통성을 확보해 가는 과정에서 나타나 강화된 하나의 이데올로기라고 할 수 있다. 즉 내셔널리즘의 역사는 곧 국민국가 형성을 위해 대중들로 하여금 국가의 존재에 신뢰를 부여하도록 하는 과정이라 할 수 있다. 이런 맥락에서 보면 특정지역을 중심으로 한 꼬리오요 관료의 교환근무와 지역신문의 소통을 비롯한 인쇄 자본주의의 등장이 라틴아메리카에서 영토적이고 정치적인 귀속감을 부여했다는 앤더슨의 견해는 한계를 갖게 된다. 다시 말해, 독립이

후 진행된, 다양한 정치, 경제, 군사적 과정을 간과한 지나친 단순화된 입장이라는 비판이 가능한 것이다(Castro-Karén & Chasteen, 2003:xx).

앤더슨이 말한 것처럼 독립전쟁 이전에 이미 라틴아메리카에 내셔널리즘이 존재했고 또 이에 따라 상당한 수준으로 내부적 분화가 진행되었다면, 라틴아메리카 지식인들이 왜 나폴레옹 침입을 정치적 독립의 기회로 적극적으로 이용하지 않고 여전히 스페인 왕에 대한 충성을 명분으로 하고 있는 지, 그리고 독립전쟁시기 왜 여전히 ‘아메리카’라는 통합적 개념을 사용하는 가라는 반론이 가능하다. 또 무엇보다도 독립이 쟁취된 이후에 국민을 어떻게 설정할 것이었는가의 문제가 가장 중요한 문제였다는 점을 보아도 내셔널리즘이 이미 선풍되어 있다는 그의 견해는 과장되어 있다는 것이다(Castro-Karén & Chasteen, 2003:4).

이러한 비판들은 실제로 독립시기와 이후시기 라틴아메리카 신문에 대한 실증적 자료를 통해 제기된다. 즉 1808에 베네수엘라에서 신문이 발간되고, 1812년 칠레에서 신문이 발간되는 것을 고려할 때 독립과 관련해 출판 매체의 역할을 강조하는 것은 설득력이 없다는 비판을 받게 된다. 출판매체가 중남미에서 확충되고 정치적 중요성을 갖게 된 것은 1810년 전이 아니라 오히려 1810년 후라는 것이다. 출판 매체의 의미 있는 증가는 새로운 정치적 입장을 합리화하고 설득하기 위한 프로파간다적인 측면에서 진행되었다. 독립 이후 새롭게 열린 정치적 공간 속에서 각 정파의 입장을 담은 정치적 담론, 문학작품, 선언문, 뉴스 등 다양한 장르들이 폭발적으로 증가한 것이다. 이러한 인쇄물 증가는 자연스럽게 정치적 상상력과 정체성의 변화를 가져오게 된다. 스페인에 고착된 기존의 정체성을 해체하고 새로운 두 가지 정체성을 만들어내는데, 하나는 아메리카라는 통합적 정체성이고 다른 하나는 “빠뜨리아”라는 지역적인 정체성이라 할 것이다(Castro-Karén & Chasteen, 2003:30-31). 앞에서 간략하게 이야기 한 것처럼 아메리카인으로서는 정체성은 스페인과 대립되는 정치, 문화적 공동체를 상징하는 개념으로 독립전쟁 시기 동안 대항이데올로기로서 의미를 갖게 되었지만, 이 전략적 슬로건은 독립이후에 유효성을 상실하게 된다. 이제 아메리카라는 통합적인 정체성보다는 빠뜨리아라는 지역적인 정체성 문제가 전면에 등장하기 시작한다. 게라에 의하면 빠뜨

리아는 매우 복합적인 정치적 정체성을 지시한다고 지적하고 있다. 독립전쟁 시기 전제로서 아메리카를 지칭하기도 했지만, 지역적 정체성들을 지시하는 개념으로 자주 사용되고 있다는 것이다. 독립직전의 경우 대부분의 중남미인들이 자신이 태어난 곳을 빠뜨리아라고 부르고 있는데, 독립 전쟁은 이 빠뜨리아에 근대적인 의미를 부여하게 된다. 즉 이제 크기는 다르지만 개별 국가와 일치하는, 혹은 일치하는 것으로 간주되는 영토적 정체성을 가진 공간으로 간주되는 것이다(Castro-Karén & Chasteen, 2003:x).

이처럼 독립전쟁은 빠뜨리아에 기반한 지역적 정체성을 국가적 정체성으로 전전화하게 한다. 라틴아메리카에서 독립전쟁 시기 “아메리카 인을 위한 아메리카”라는 슬로건은 의미 있는 전술로 작동했다. 이제 스페인으로 부터 독립이 되자, 라틴아메리카 태생을 강조하던 입장은 지역적 차이를 강조하게 된다. 라틴아메리카에서 태어난 사람들 사이에서 “우리”와 “그들”이 구별되기 시작한다. 이 구별에 있어 중요한 것은 동일한 지역 내에 살고 있는 사람들의 동질감이라 할 것 이다. 이 동질감을 강화하기 위해 문화의 문제가 중요하게 언급되기 시작한 것이다. 결국 새로운 국민국가에의 열망은 깊은 문화적 동질성이라고 하는 전제에 기반하고 있었다. 문화적 유사성은 새로운 국가가 유지되고, 국민이 재생산되기 위해서 끊임없이 강화되고 체화시켜야 할 주요한 요소가 된다. 이런 맥락에서 볼 때, 독립이후 시기는 일종의 정체성 정치에 의해 지배된 시기라고 할 수 있다. 이 정체성 정치는 경제적 이익이나 형식적 이데올로기가 아닌, 구성원들의 귀속감과 유사성을 어떻게 확보할 것인가가 강조되었다는 것을 의미한다(Castro-Karén & Chasteen, 2003: xvi-xvii). 이런 맥락 속에서 점차 독립전쟁 및 독립전쟁의 영웅들이 새로운 국가성의 상징적 구성에 있어 중요한 참조점으로 등장하기 시작한다.

이 문제는 결국 독립전쟁을 통해 새로운 국가들이 만들어졌다고 할지라도, 그들은 아직 근대 국가가 가지고 있는 ‘국가적’ 상상체계를 갖지 못했다는 것을 보여준다. 프리오요 지식인들과 정치인들이 담당해야 했던 역할이 바로 내셔널리즘의 내용을 이루는 공통의 역사, 공통의 영웅, 공통의 기원, 공통의 미래 등 국가적 상상체계의 담론적 인프라를 구축하기 위해 과거를 환기해 내는 것이다(Castro-Karén & Chasteen, 2003:32).

이런 맥락 속에서 라틴아메리카에서 내셔널리즘이 강화된 시기는 독립 이전이나 독립시기가 아니라 오히려 1850년대 이후라는 견해도 나타난다. 라틴아메리카에서 독립과정이 어느 정도 일단락되고 국민국가가 안정화되어 가던 1850년대 이후 특히, 1870년 이후의 수출 확대에 기반 한 경제 성장 정책이 지배 엘리트들의 통합에 기여했다는 것이다. 수출 증가는 새롭게 세수를 증대시켰고, 다양한 사회적 인프라 및 학교, 종교, 군대, 경찰과 같은 국가 기구를 효율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 물질 기반을 마련해 주었던 것이다 (Castro-Karén & Chasteen, 2003:xviii).

결론적으로 이야기 하자면, 내셔널리즘이라고 하는 국민적 의식이 독립전쟁 전에 존재했고, 또 독립이후 등장하는 국가들의 경계를 결정했다는 앤더슨의 견해는 라틴아메리카 역사가와 비평가들의 일반적인 합의와 배치된다. 앤더슨이 상정한 국민국가는 1810년 경 독립을 획득한 이후에도 수십 년 동안 ‘실재’라기보다는 오히려 여전히 ‘열망’으로 존재했다고 보는 편이 설득력이 있다. 즉 유럽과 달리 라틴아메리카에서는 “국가가 국민보다 먼저 존재”했다는 것이다. 그리고 오랜 기간 동안 “국민성을 찾는 국가들”의 형태로 남아있었다는 것이다(Castro-Karén & Chasteen, 2003:xviii). 이 오랜 기간 동안 국민성의 내용을 찾기 위해 내셔널리즘이 작동했다는 것이다.

3. 독립이후 국가정체성 형성

앞서 언급한 것처럼 독립이후 국가정체성 형성과 관련하여 가장 중요한 일은 공통의 과거를 통해 공통의 기억을 만들고 이 기억을 통해 소속감을 부여하는 것이다. 이 공통의 기억은 텍스트에만 의존하는 것이 아니라, 다양한 상징으로 외화되어 현실 곳곳에서 과거를 명확하게 환기시킨다. 레베카 얼은 이것이 일종의 “조용한 윤리 강의”로, 길거리 이름과 길거리에 배치된 조각과 건축물들은 일상적인 산보를 기억과 경의의 행위로 바꾼다고 지적하고 있다(Rebecca Earle, 202:375). 이 장에서는 그녀의 연구를 정리하면서 간략하게 국가적 과거의 상징화 사례들을 살펴보고자 한다.

19세기 들어 라틴아메리카 지식인들과 정치인들은 다양한 방식으로 과거

를 호명해 내는데, 이런 과거에 대한 관심은 결국 국민 국가의 정체성 형성과 밀접하게 관련되어 있다. 이런 측면에서 내셔널리즘은 ‘국가적’ 과거에 대한 배제와 포섭을 통해 자연스럽게 국가의 경계를 만들어 간다. 물론 이 경계는 영토적인 경계뿐만 아니라, 심리적이고 문화적인 경계를 포함한다. 이제 국가들은 상상의 공동체를 작동시키기 위해 자신들의 과거를 호명하여 적극적으로 소비하게 되는 것이다. 이렇게 호명된 과거가 가장 공식적으로 등장하는 것이 바로 우표, 동전, 동상, 지명 등 국가가 공적으로 작성하고 관리하는 영역이라 할 것이다. 따라서 독립이후 개별 국가에서 만들어지는 우표, 동전, 동상, 지명 등에 관한 연구는 각 개별 국가가 형성하고자 하는 국가적 정체성과 관련해서 중요한 의미를 갖는다고 할 수 있다(Rebecca Earle, 2023:378-379). 즉 과거의 복원은 취사되고 가공된다는 의미에서 이미 그 자체로 이미 정치적이고 문화적인 행위로 간주된다. 결국 과거의 복원과 기념 행위는 국민국가 형성의 중요한 측면으로 정체성 형성 과정에 개입해 있는 지배 계층의 관점이 관철된 의미화과정으로 이해해야 한다는 것이다.

이러한 과거의 복원은 독립 시기와 독립이후 19세기 후반부는 질적인 차이를 보여준다. 독립 이후 시기 개별 국가는 콜럼버스 정복 이전의 원주민 문명에 대한 새로운 평가와 복원작업을 진행한다. 이것은 앞서 언급한 것처럼 스페인에 맞선 대항적 이미지 구축과 스페인의 식민적 잔재와의 갈등을 염두에 둔 상징전략이라 할 것이다. 이러한 전략은 특히, 행정구역, 거리, 도시 등의 이름의 개칭에서 잘 나타나고 있다. 즉 정치인들과 지배 엘리트들은 스페인의 지리를 환기하는 지명들을 변경하는데, 그 대안으로 원주민 지명을 사용하게 된다. 스페인과의 의미적인 연관을 지우고 식민이전 과거와의 결합을 상징적으로 보여준다고 할 수 있다. 예를 들어, 누에바 에스파냐 지역의 누에보 산판데르(Nuevo Santander)가 따마우리빠스(Tamaulipas)로, 누에바 갈리시아(Nueva Galicia)가 할리스코(Xalisco)로 변경되었고, 누에바 에스파냐라는 행정구역도 아스텍 이름을 따서 아나우악(Anáhuac)이라는 이름으로 불리고, 멕시코사람을 뜻하는 멕시까노(mexicano)도 원주민 문명의 이름을 딴 아나우아까노(anahuacano)라고 불리기도 했다. 이처럼 멕시코에서 아스텍을 신화화했다면 칠레에서는 『아라우카나』를 통해 과거와의 일체감을

부각시켰다. 즉 『아라우카나』에 등장하는 다양한 영웅들이 독립이후 칠레의 애국적 상징으로 차용되어, 지명에도 사용되고 해군 군함의 명칭으로 사용된다(Rebecca Earle, 202:382-383).

또한 새로운 국가를 상징하기 위해 만들어진 상징물 역시 원주민 이미지를 사용하고 있다. 특히, 스페인 왕의 모습이 그려진 식민시기 동전과 달리 독립전쟁시기 만들어진 동전들은 특정한 사람들을 그리기보다는 주로 원주민 문명과 관련된 모티브를 사용하고 있다는 점에서 꼬리오요 계층의 전략을 잘 보여준다고 할 수 있다. 예를 들어, 멕시코에서 전쟁 시기 처음 주조된 동전은 스페인 왕실과 차별되는 원주민 문화 요소인 활과 화살, 그리고 아스텍건국 설화등을 상징화하고 있다. 콜롬비아 지역에서 1810년 경 만들어진 동전들 역시 왕관을 쓴 인디오 소녀나 원주민 전사들을 부조하고 있으며, 아르헨티나나 페루지역의 동전 역시 잉카의 상징인 빛나는 태양 얼굴을 담고 있다(Rebecca Earle, 202:387).

원주민 상징의 채용은 독립시기 지배 엘리트의 전략적 선택으로 스페인 식민주의의 폭력적인 성격을 부각하기 위한 것이었다. 독립이후에도 일정한 시기 동안 이러한 경향은 지속된다고 할 수 있다. 앞서 지적했던 것처럼 19세기 중반이후 이러한 경향에 변화가 나타나게 된다. 이는 꼬리오요 계층이 가지고 있는 본질적으로 유럽지향적인 속성에서 기인한 것으로, 정복이전의 원주민 문명과 스페인의 문화적 유산 사이에서의 동요를 드러낸 것이다. 스페인과 대립적인 상징을 통해 독립전쟁을 이끌어 나가기 위한 꼬리오요의 전략적 선택은 많은 부분 원주민 이미지의 채용을 통해 성공적으로 수행되었다. 그러나 이러한 선택이 그들의 특정한 이데올로기적 요소를 가지고 진행된 것이 아니라, 전술적인 선택이었다는 점에서 이들이 지속적으로 정복 이전의 과거를 국가적 이미지로 승인할 것인가의 문제는 다른 문제인 것이다.

즉, 독립이후 꼬리오요 지도자들은 원주민 문명의 파괴자라는 스페인에 대한 공격적인 입장에서 벗어나 ‘유럽적인’ 관점을 내 보인다. 이러한 변화를 레베카는 산 마르틴의 사례를 들어 설명하고 있다. 1822년에 산 마르틴은 정복자인 피사로의 깃발을 “잉카제국을 노예로 삼기 위해 가져온” 것으로 묘사한데 반해, 1844년에는 동일한 깃발을 “페루 정복시기동안 용감한

돈 프란시스코 피사로가 휘둘렀던” 것으로 묘사하고 있다. 이렇게 해서 원주민 정복은 300년 질곡의 시작이 아니라, 라틴아메리카 역사에서 의미 있는 순간으로 변모하게 되는 것이다. 이러한 변화를 레베카는 1840년대 이후 정치지형의 변화와 관련하여 설명하고 있다. 국민국가의 정치 지형이 마련되면서 등장한 정치 엘리트들은 유럽적인 교육을 통해 성장했고, 자신들의 정치적 영향력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정복 이전의 과거가 아닌 새로운 과거가 필요한 것이다. 특히, 자유주의자들은 자유주의, 진보 등 자신들의 이데올로기적 입장을 보다 미래 지향적으로 해석하기 위해 정복 이전이 아닌 독립전쟁에 의미를 부여했고, 보수주의자들 역시 가톨릭이라는 종교성을 보호하기 위해서는 정복 이전을 강화하는 것에서 탈피해야 했던 것이다(Rebecca Earle, 202:392-393).

이렇듯 독립이 달성된 이후 엘리트 지식인들과 정치인들은 점차 원주민 상징을 중심으로 배치된 국가의 상징체계와 단절하기 시작하는 것이다. 국가가 관리하는 각종 상징들에서 원주민 상징이 아닌 독립전쟁이나 전쟁 시기의 꼬리오요 영웅, 또 독립이후의 역사적 사건들이 새롭게 등장하기 시작한다. 이러한 예로 1810년 5월에 일어난 아르헨티나 독립운동을 환기하기 위해 붙여진 부에노스아이레스의 ‘5월가(Avenida de Mayo)’, 1850년에 시작된 자유주의 개혁을 화기하기 위해 1870년 만든 ‘레포르마 거리(Paseo de la Reforma)’ 등을 들 수 있을 것이다(Rebecca Earle, 202:376).

IV. 결론

독립시기와 국가형성기를 새롭게 이해하고, 이후 후속작업에서 진행될 구체적인 텍스트 읽기의 토대를 마련하기 위해 라틴아메리카 독립과 정체성 형성과정에 개입해 있는 내셔널리즘과 꼬리오요 계층의 역할을 살펴보았다. 이를 위해 살펴본 것처럼 라틴아메리카 독립배경을 간단하게 살펴보고, ‘상상의 공동체’로서 국민국가 형성 맥락을 더듬어 보았다.

상상의 공동체란 주지하고 있듯이 특정 민족 혹은 국민이 타 민족과 구별

되는 것은 어떤 본질적인 요소 즉, 인종, 언어나 영토와 같은 외형적 요소가 아니라 감성이나 소속감 같은 심리적이고 문화적인 요소라는 입장이다. 앤더슨의 이러한 입장은 기존의 국가와 민족에 대한 전통적인 이해를 비판적으로 극복한 것으로 평가되지만, 라틴아메리카의 경우 많은 논쟁점을 제시해 주는 것이 사실이다. 라틴아메리카의 역사적 경험을 지나치게 단순화하고 있다는 비판, 유럽적인 관점에서 라틴아메리카를 사유하고 있다는 비판, 꼬리요요 지도층 중심으로 라틴아메리카 독립을 이해하고 있다는 비판 등이 그 대표적인 것들이다. 살펴본 것처럼, 앤더슨이 라틴아메리카 독립 과정에서 내셔널리즘의 역할을 강조한 데 반해, 몇몇 이론가들은 독립이전에 라틴아메리카의 내셔널리즘의 존재에 의문을 제기하고 오히려 독립 이후 국민국가 형성과정에서 의미 있는 역할을 수행했다는 입장을 취한다.

일반화해서 말하자면 1806년을 기점으로 해서 라틴아메리카 곳곳에서 스페인으로부터 독립 움직임이 나타나고, 곧 독립전쟁을 통해 스페인의 식민 지배에서 벗어난 독립국가가 형성되기 시작한다. 이렇게 시작된 독립국가 형성은 각 지역의 지정학적 요소에 따라 시기를 달리 하지만 대부분 19세기 중반에 이르러 중남미 대부분 지역에서 완결되게 된다. 그러나 독립된 국가라는 정치적 형태는 확보하였지만, 이른바 ‘국민국가’로서 존재하기 위해 필요한 구성원들의 소속감이라는 가장 중요한 요소를 어떻게 확보할 것인가 문제가 독립운동을 지도한 꼬리요요 계층이 당면한 시급한 과제였다고 할 수 있다. 다시 말해 국가로서 존재하기 위해 필수 불가결한 것이 영토, 국민, 그리고 소속감으로 표현될 수 있는 국가 정체성이라고 한다면, 외형적으로 주어진 구성원들에게 자신의 영토와 국가에 대해 소속감을 느끼게 하는 일련의 문화적 과정이 필요한 것이다. 이 과정이 바로 내셔널리즘이 기능하는 공간이라는 것이다.

이처럼 내셔널리즘이 공통의 과거와 기억을 통해 국가에 대한 귀속감과 연대감을 고무하는 일련의 과정이라면 라틴아메리카에서 이 과정은 크게 두 가지로 나누어 볼 수 있었다. 독립전쟁 시기와 독립전쟁 이후 19세기 후반부의 모습이 확연하게 구별되는 것이다. 독립시기에는 스페인과 대립되는 상징을 위해 식민이전의 원주민 이미지가 적극적으로 차용되었다면, 국민국

가가 안정화되기 시작한 19세기 후반에는 독립전쟁과 전쟁 시기 꼬리오요 영웅들을 국가적 이미지로 차용하게 된다.

이는 독립전쟁과 이후 국민국가 형성과정이 꼬리오요 계층에 의해 주도되었고, 결국 꼬리오요 계층에 의해 가공된 역사가 라틴아메리카 국민국가의 과거사로 자리잡게 됨을 의미한다. 이 점은 이후 라틴아메리카 국민국가 형성과정에서 배제된 기타 인종 집단을 어떻게 국가적 통합성 안에 결합할 것인가가 여전히 의미 있는 문제로 남아있다는 것을 뜻한다. 또 상상의 공동체를 만들기 위해 필요로 하는 공통의 역사라고 하는 것도 선택적으로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꼬리오요 계층의 정치적 필요에 의해 과거 역시 선택되고 가공되었다는 점에서, 여전히 국가형성기는 새로운 해석의 여지를 남겨두고 있는 것이다.

참고문헌

- 앤더슨, 베네딕트. 2002. 『상상의 공동체: 민족주의의 기원과 전파에 대한 성찰』.
윤형숙 옮김. 서울: 나남.
- Andrews, George Reid. 1985. "Spanish American Independence: A Structural Analysis." *Latin American Perspectives*, 12(1): 105-132.
- Bethell, Leslie(ed.) 1987. *Spanish America after Independence c.1820-c.1870*.
Cambridge: Cambridge Univ. Press.
- Bushnell, David. & Macaulay, Neill. 1989. *El nacimiento de los países latinoamericanos*. Madrid: Nerea.
- Castro-Klarén, Sara. & Chasteen, John Charles(ed.). 2003. *Beyond Imagined Communities: Reading and Writing the Nation in Nineteenth-Century Latin America*. Washington D.C.: Woodrow Wilson Center Press.
- Earle, Rebecca. 2001. "Creole Patriotism and the Myth of the 'Royal Indian'." *The Past and Present Society*, 172(1): 125-145.
- _____. 2002. "Padres de la Patria and the Ancestral Past: Commemorations of Independence in Nineteenth-Century Spanish America." *Journal of Latin American Studies*, 34: 775-805.
- _____. 2005. "Letters and Love in Colonial Spanish America." *The Americas*, 62(1): 17-46.
- _____. 2005. "Sobre Héroes y Tumbas: National Symbols in Nineteenth-Century Spanish America." *Hispanic American Historical Review*, 85(3): 375-416.
- Guerra, François-Xavier. 1993. *Modernidad e independencias: Ensayos sobre las revoluciones hispánicas*. 2ª. ed. México: Fondo de Cultura Económica/ México.
- Kinsbruner, Jay. 1994. *Independence in Spanish America: Civil Wars, Revolutions, and Underdevelopment*. Albuquerque: University of New Mexico Press.
- Kristal, Efraín. 1994. "The Degree Zero of Spanish American Cultural History and the Role of Native Populations in the Formation of Pre-Independence National Pasts." *Poetics Today*, 15(4): 587-603.
- Lynch, John. 1986. *The Spanish American Revolutions 1808-1826*. 2ª. ed. New York/London: W.W.Norton & Company.
- McFarlane, Anthony. 1998. "Identity, Enlightenment and Political Dissent in Late Colonial Spanish America." *Transactions of the Royal Historical Society*, 8:

309-335.

- Miller, Nicola. 2006. "The Historiography of Nationalism and National Identity in Latin America." *Nations and Nationalism*, 12(2): 201-221.
- Skidmore, Thomas E. & Smith, Peter H. 1997. 4th ed. *Modern Latin America*. New York/Oxford: Oxford Univ. Press.
- Sommer, Doris. 1991. *Foundational Fictions: The National Romances of Latin America*. California: Univ. of California Press.

성명: 이성훈

주소: 서울시 관악구 서울대학교 인문대학 서어서문학과

E-mail: anselmus@snu.ac.kr

논문접수일: 2008년 3월 18일

심사완료일: 2008년 3월 31일

게재확정일: 2008년 4월 1일